

‘무더위 탈출’ 광주천의 여름 풍경화



24일 광주시 동구 용산동에 마련된 광주천 주암호방류수 놀이시설을 찾은 시민들이 물속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기무사, 비상계엄 선포문도 작성했다

지방신문·조간신문 등 매체별 사전 검열 지침도 마련

67쪽 분량 세부자료 공개

이와 함께 문건은 계엄사령관 추천에 대해서는 합참의장의 경우 군사 대비태세 확립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제외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문건은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도 담겨 있었다. 특히 계엄법에 따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시도시 계엄해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당(黨)·정(政)협의를 통해 직권상정과 표결거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요시설 494개소와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해 기계화사단·기갑여단·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이 전자·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히 투입하는 계획의 경우, 시위대 저항이 가장 적은 야간에 진입하도록 투입 시기를 명시했다.

문건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기각 시를 가정해 만든 것으로 판결 직후 상황별로 위수령, 경비계엄, 비상계엄으로 변경해 발동이 가능하도록 상황별로 분류해냈다. 특히, 계엄령의 경우 예시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돼 있는 등 언제든 비상계엄 발동이 가능하도록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

폭염에 열받은 바다... 여수해역 적조 주의보

여수~장흥 득량만해역에는 고수온주의보 양식장 관리 ‘비상’ 기록적인 찜통더위 계속 전력수요도 연일 역대 최고치 경신

계속되는 폭염으로 바다수온이 치솟고 첫 유해성 적조생물이 발생하면서 양식장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또 해파리 개체수도 점점 늘어나 해파리 경보 발령이 임박했다. <관련기사 3면>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이날 오전 10시 여수해역에 적조주의보를, 여수~장흥 득량만해역에 고수온주의

보를 발령했다. ‘적조주의보’는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 밀도가 100개체/ml 이상 출현할 경우 발령된다.

예찰 결과, 여수시 남면 함구미해역에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761개체/ml가 발생했다. 화정면 화화도해역에도 코클로디니움이 180개체/ml가 조사됐

다. 지난해에는 유해성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고, 2016년 8월17일 주의보가 발령된 것과 비교하면 25일이나 빨라졌다.

수온 변화도 심상찮다. 지난 23일 여수 신월-장흥 회진 해역 수온은 26-29.3도, 해남 화산 해역은 27.5도, 신안 압해-영광 안마도 해역은 28.4-28.9도로 급격히 상승, 양식생물 피해가 우려된다. 합평 주포항 인근 양식장에서는 지난 18일 돌돔 6만 5000마리가 폐사했다.

이처럼 적조·고수온이 발생하면 양식 어패류는 수온쇼크, 생리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산소 부족 등으로 피해가 나타난다. 주로 육상의 넓치 양식장과 해상의 조피볼락, 전복 가두리양식장에서 피해가 많은 만큼 양식어가에서는 어장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수온이 오르면서 보름달물해파리 개체수도 늘고 있어 어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보름달물해파리가 100㎡당 5개체 이

상 출현하면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보름달물해파리는 크기가 작고 독성도 미미하지만 무리를 이루면 어선 조업에 치명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보름달물해파리 성체 개체수가 점차 늘고 있다. 다음 주께 해파리 주의보 발령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최대전력수요는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4일 오후 3시(오후 2~3시 순간전력수요 평균) 전력수요가 9177만kw를 기록했다. 전일 최고치를 보인 9070만kw를 훌쩍 넘었다. 여유 전력을 뜻하는 예비력은 692만kw, 전력예비율은 7.5%로 집계됐다. 예비율은 2016년 8월8일의 7.1% 이래 최저다. 예비력이 500만kw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는 전력수급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가정과 기업에 절전 참여를 호소하게 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北,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착수

미국 38노스 보도

ICBM 개발 미사일 실험장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38노스 보도는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서해위성발사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곧 파괴하겠다’고 약속한 장소로 꼽힌다.

38노스는 이날 “북한, 서해위성발사장 핵심시설 해체 시작”이라는 제목의 보고사에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에서 해체작업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최근 촬영한 위성사진들을 판독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 20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발사 직전 발사체를 조립하는 궤도식(rail-mounted) 구조물, 액체연료 엔진 개

발을 위한 로켓엔진 시험대 등에 대해 해체작업을 시작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 후인 22일 찍힌 위성사진에서는 건물 한쪽 모서리 부분이 완전히 절거되고, 해체된 구조물이 바닥에 놓여있는 장면도 확인됐다고 38노스는 평가했다. 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가림막도 치워졌다. 다만 연료·산화제 병커와 주 처리 건물, 발사탑은 아직 해체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38노스는 “해체작업에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체작업은 약 2주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해위성발사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데 있어 핵심 시설들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을 이행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24일 “서해위성발사장 해체는 비핵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임동욱 기자 tuim@연합뉴스

광주일보
전라도 정도 1000년 인물 열전
-영광 의병장 김용구 ▶18면
KIA 황인준 오늘 선발 등판
-고향에서 화화 상대 첫 승 도전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식습관 바로잡고 메타그린으로 건강 더하기

VITALBEAUTIE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건강기능식품
녹차추출물, 비타민 C
50.4g [560mg X 90정]

입은 즐겁게 몸은 가볍게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식습관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죠. 이제, 하루 한 번 메타그린 습관도 시작해보세요.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줘 무너진 신진대사를 바로잡아줍니다.

건강한 아름다움의 시작
VITALBEAUTIE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